스쿨존 정지선 위반 스마트횡단보도가 특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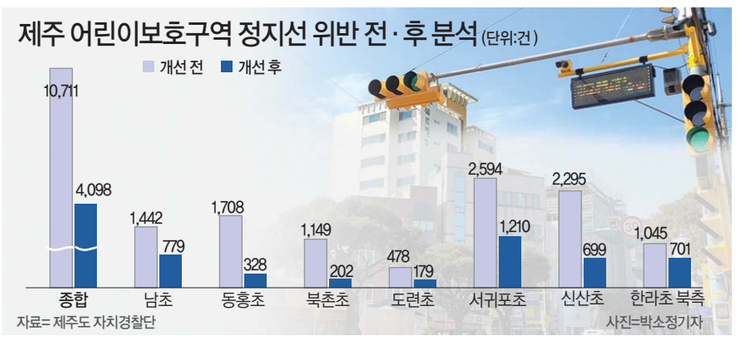
자치경찰단, 도내 29곳 중 위험지점 7곳 도로 개선
위반사례 61% 감소… "과태료 대신 운전자 스스로"

5일 낮 제주시 제주남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자 달리던 차량들이 서서히 속도를 줄이면서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멈춰섰다. 정지선을 잘 지키는 운전자들이 있는가 하면, 정지선을 지키지 않은 운전자들도 보였다. 정지선을 넘는 차량이 나타나자 횡단보도 위에 있는 화면에는 '정지선 준수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떴다.

이는 '인공지능(AI) 스마트횡단보도'이다. 이 곳은 학생들이 다니는 스쿨존인데다 정지선 위반 사례가 빈번해 2023년에 AI 스마트횡단보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 이 시스템은 영상 분석으로 정지선을 넘는 차량을 실시간 감지하고 위반 시에는 현장 전광판에 '정지선 준수'를 알리는 메시지를 띄우는 형식이다. '과태료 부과' 대신 운전자 스스로 행동을 바꾸도록 유도하는 예방 중심 시스템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도내 초등학교·경로당 주변 횡단보도 29곳에 스마트횡단보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시간대와 요일, 장소별 위반 패턴을 분석해 위반 사례가 잦은 제주남초·한라초·도련초·북촌초·서귀포초·동홍초·신산초 등 도내 7개 초등학교 주변을 집중 관리 지역으로 선정해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와 협력해 도로 구조 개선에 나서왔다. 정지선을 횡단보도에서 더 뒤로 옮기고 지그재그 모양의 차선을 도색하는 등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이고 정지선 앞에 멈춰설 수 있도록 유도했다.

AI 스마트횡단보도 시스템으로 수집한 위반 데이터를 분석해 도로



구조를 개선한 결과 정지선 위반이 61%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개선 전(지난해 12월 10일~올해 1월 9일)과 개선 후(올해 1월 12일~2월 11일) 각 30일간 데이터를 비교해 보니, 정지선 위반 건수는 기존 1만 711건에서 4098건으로 줄었다. 학교 별로는 제주남초가 1442건→ 779건, 한라초 북측 1045건→ 701건, 도련초 478건→ 179건, 북촌초 1149건→ 202건, 동홍초 1708건→ 328건, 신산초 2295건→ 699건으로 각각 줄었다.

자치경찰단 측은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데이터를 쌓아야 어떤 위반이 많은 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도로 시설 개선을 했다"며 "AI 기술과 도로 시설 개선이 결합할 경우 운전자 행동 변화에 효과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다만 강풍 등 바람에 의해 시스템 작동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은 개선사항으로 꼽힌다.

자치경찰단 측은 "바람이 불면 카메라가 흔들리면서 흐트러져 감지 구역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사례가 나타나면 확인해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학교 앞 돌담 붕괴 조짐… 조치는 미적

제주시 모 중학교 앞 거대 돌담서 50㎝ 돌출 발생
학교측 "보수공사 예정… 빠른 시일 내 조치할 것"

도내 한 중학교 앞에 설치된 오래된 돌담에서 일부 돌들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현상이 발생했다. 학교 당국은 붕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조치에 나섰지만 현장에는 현수막만 허술하게 게시돼 주민들이 불안함을 표하고 있다. >> 사진

5일 오전 제주시 모 중학교 앞 돌담에는 '위험! 돌담 붕괴 주의'라고 적힌 빨간색 현수막이 내걸렸다. 또 '위험', '안전제일'이라는 글자가 적힌 테이프가 돌담을 느슨하게 감싸고 있었다.

이곳을 지나가던 주민 한모(60대)씨는 "현수막이 생긴 지 꽤 오래 된 것 같은데 아직도 그대로다"라며 "학생들도 많이 다니는 곳인데 펜스를 쳐서 접근을 막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교 측에 따르면 돌담의 하단에 최근 면적 약 50㎝ 정도의 일부 돌들이 돌출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약 보름 전 이 사실을 파악해 붕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현수막을 설치한 뒤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돌담은 가로 길이 약 40m, 높이 2.5m에 달하며 수십년 넘게 학교 앞을 지킨 것으로 추정된다. 마름모꼴의 돌들이 차곡히 쌓여 있어 제주식 돌담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도내 모 돌담 시공업체 대표는 한라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돌담은 일본의 돌담 양식인 '견치'식 돌담으로 특성상 돌이 하나만 빠져도 전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며 "아래 돌들이 돌출됐다는 건 돌들이 슬슬 빠지고 있다는 건데 폭우가 내리게 되면 완전히 무너져 내릴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학교 관계자는 "돌담 안쪽으로 소나무가 뿌리를 내리면서 일부 돌들이 앞으로 튀어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돌출 현상이 심하지 않지만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마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양유리기자

3·8 제주지역 여성대회
7일 제주시청 광장서 진행

제118주년 국제 여성의날을 맞아 다가오는 주말 제주에서 기념 행사가 열린다.

2026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주지역 여성대회는 오는 7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제주시청 광장에서 개최된다. 대회에는 제주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번 슬로건은 '약속을 지키는 제주, 페미니스트가 만든다!'이다. 제주 사회가 선언해 온 평화·인권·성평등의 가치를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이행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행사는 1부 선포식과 거리행진, 2부 시민참여 부스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부스는 ▷노동(돌봄) ▷성평등 ▷여성대표성 ▷기후위기와 여성건강권 ▷젠더폭력 ▷트랜스 여성(성소수자 인권) 등 6개 주제로 운영된다. 양유리기자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제주본부 제주시체육회생활체육지부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노동자들의 세금을 횡령한 직원을 비호하는 제주시체육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강희만기자

"횡령 직원 비호하는 제주시체육회 규탄"

제주공공연대노조 "징계·금액 환수도 없이 무책임"

제주시체육회에서 기간제노동자들의 세금을 횡령한 직원이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징계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징계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직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제주본부 제주시체육회생활체육지부(이하 공공연대)는 5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노동자들의 세금을 횡령한 직원을 비호하는 제주시체육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공공연대에 따르면 제주시체육회 소속 모 직원은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소득세·주민세 등 세금을 이중 납부하게 했고, 이를 횡령했다. 지도자들은 2023년 이 사실을 파악해 고발조치를 취했고, 해당 직원은 지난해 11월 '업무상 횡령'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횡령한 세금은 지도자들에게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는 것이 공공연대의 주장이다.

공공연대는 "횡령 대상자는 현재도 제주시체육회에서 버젓이 근무를 하고 있다"며 "제주시체육회는 과거의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고,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반복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시체육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사건은 징계시효 5년이 지나 법적으로 징계할 수 없다는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았다"며 "이에 따라 환수 조치도 힘들다"고 말했다. 양유리기자

바다에 분뇨 5.8t 불법배출 화물선 적발

제주해경, 입건 조사 착수

제주바다에 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한 화물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선적 화물선 A호(1000t)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호는 2023년 7월31일부터 올해 2월22일까지 출항지에서 한림항 입항시까지 영해기선 12해리 내에 분뇨 5.81㎘(t)를 그대로 해상에 배출한 혐의를 받는다.

선박에서 발생한 분뇨는 소독 또는 정상처리해 영해기선(영토 인접 해역 기준선)으로부터 12해리(약 22㎞)를 넘는 거리에 배출해야 한다.

제주해경은 전날 한림항 외항에서 A호에 대한 출입검사를 하던 중 불법 배출 사실을 파악했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덱스보청기 기준금액 131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환급)으로 보청기 제품비용(초기 적합관리비용 포함) 최대 99만 9천원과 후기 적합관리 비용 18만원을 구분하여 지급.
  *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111만원+20만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덱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시·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중증~경증)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715호 인용.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 반
정책특가형, 와이덱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131만원	본인부담금 0원 (전액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보청기 제품비용 111,000원 후기 적합 관리비용 20,000원 (나머지 90%는 건강보험공단 지원)

※정책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덱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WIDEX

보청기 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덱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를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없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변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덱스 보청기 만의 고유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명확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이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변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변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난청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달라 정확하게 청력을 맞추지 못하면 소리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소리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한다. 따라서 보청기의 제작은 정확한 청력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와이덱스의 전 제품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조절하는 디지털 보청기이며, 와이덱스의 센소그램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청력보정 방법으로 청력에 맞춰 소리를 조절하여 좀 더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

와이덱스 보청기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광고사전심의 심의번호 2010-GN1160079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청능재활센터
이명전문케어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상담예약 064)755.1005
원장 강동우
청각학박사
산학협력교수
전문청능사
언어재활사